
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	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3.8(일)		
책 임 자	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장 신 장 수(02-2100-2930)		담 당 자	오 형 록 사무관 (02-2100-2931)		
	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김 도 곤 (044-201-4219)			노 지 훈 사무관 (044-201-4219)		
	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 김 영 진 (02-787-6901)			곽 효 식 팀장 (02-787-6906)		

제 목 : LCC에 3천억원 지원 관련

[매일경제(3.9일자 온라인 23시) 및 MBN(3.8일자 방송)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- ☐ 매일경제는 3.9일자 「LCC에 3천억원 긴급지원?, 신생 LCC에겐 그림의 떡」 제하 기사에서,
 - 산은 심사결과, 재무상황이 양호한 제주항공·진에어·에어부산 등 3곳의 LCC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,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없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도
- ☐ 아울러 MBN은 3.8일자 「LCC 3천억원 긴급융자...3개사 가닥에 논란」 제하 보도에서,
 - 피해상황과 관계없이 비교적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진에어와 제주항공, 에어부산 등 3곳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,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금융위·국토부·산업은행은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항공업 긴급지원방안」(경제활력대책회의, 2.17일)을 마련·발표하고,
 - LCC 대상으로 자금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“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”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이후 금융권·LCC 간담회(3.3일) 등 LCC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, LCC 3개사로 금번 대출 대상이 한정되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.
- 아울러 현재 산업은행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하여 대출심사 절차 등을 신속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